

강원권 3개 철도건설 순항, 경제활성화 기여

강릉선~영동선 연결 박차
내년 원주~제천 복선철 개통
도담~영천 공정률 46% 진행

강원지역 3개 구간에서 추진중인 철도 건설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본부장 조순형)는 수도권과 강원권을 잇는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내에서는 올해 강릉선 원주~강릉 철도건설 사업에 2430억원,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사업에 2782억원,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에 5922억원 등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철도시설공단은 올해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을 비롯한 일반철도사업에 1조 113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미 상반기에 5845억원(52.5%)을 조기 집행,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평

가됐다. 강릉선 원주~강릉 구간의 경우 지난해 12월 개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현재 강릉선과 연계된 영동선과의 철도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동해연결선 건설(1.9Km)에 매진하고 있다. 중앙선 원주~제천 44.1km 복선전철사업은 총공정률 80%로, 내년 하반기 개통예정이다. 현재 본선 기반시설은 모두 완료하고 역사건물과 궤도, 전차선 가설 등 후속공정을 추진중이다.

신설되는 남원주역사는 치악산의 산봉우리 중첩을 표현하고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넘어가는 관문을 형상화해 건축중이며 기존 원주역사의 역할을 대체하게 된다. 원주~제천 사업이 마무리되면 현재 56.3km 단선 노선이 44.1km로 직·복선화되고 EMU250 준고속차량이 2020년 이후 투입되면 운행속도도 시속



120km에서 250km로 향상돼 청량리~제천간 이동시간이 기존 1시간 40분에서 56분으로 44분 단축된다.

삼성물산 5년째 '시평 1위' 수성

(토목건축)

'주택' 주력 건설사 상승세 지속

2018 시공능력평가 결과

'역전' 노렸던 현대 '2위' 머물러
대림 3위-대우 4위로 자리교체

삼성물산이 5년 연속 토목건축 시공능력평가 1위 자리를 지켰다.

올 들어 주택경기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이지만, 아직까진 앞선 주택경기기의 약발이 먹히면서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이 두각을 나타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 시공능력평가' 결과, 삼성물산이 토목건축공사 사업 시공능력평가액 17조3719억원으로 수위를 차지했다. ▶관련기사 2면

시공능력평가는 건설공사 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한 지표로,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된다.

올해는 전체 건설사(6만7436개)의 87.8% 수준인 5만9252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삼성물산은 올해 토목건축 시평액이 전년(16조5885억원) 대비 4.7% 증가하며 5년째 1위를 수성했다.

이어 현대건설이 시평액 13조675억원으로, 전년(13조7106억원)보다 4.7% 줄어

2018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현황 (토목건축)

순위	업체명	평가액(원)	순위변동
1	삼성물산(주)	17조3719억	-
2	현대건설(주)	13조675억	-
3	대림산업(주)	9조3720억	11
4	㈜대우건설	9조1601억	1↓
5	GS건설(주)	7조9259억	11
6	현대엔지니어링(주)	7조4432억	11
7	㈜포스코건설	6조9633억	2↓
8	롯데건설(주)	5조5305억	11
9	SK건설(주)	3조9578억	11
10	HDC현대산업개발(주)	3조4280억	2↓

들며 2위를 유지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시평액 격차가 2조원대로 줄어들며 올 해 순위가 역전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경영평가액에서 4조원에 가까운 차이가 벌어지면서 순위가 그대로 유지됐다.

시평액 상위 톱10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건설사 중에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을 제외하곤 모두 순위가 바뀌었다.

지난해 각각 3위, 4위였던 대우건설(9조1601억원)과 대림산업(9조3720억원)이 올해 서로 순위를 맞바꿨고, 작년 5위였던 포스코건설(6조9633억원)이 두 계단 내려앉으며 6위, 7위였던 GS건설(7조9259억

원)과 현대엔지니어링(7조4432억원)이 각각 5위, 6위로 한 계단씩 뛰어올랐다.

8~10위까지도 지난해 8위에 랭크됐던 HDC현대산업개발(3조4280억원)이 10위로 두 계단 주저앉은 사이 롯데건설(5조5305억원)과 SK건설(3조9578억원)이 각각 8위, 9위를 꿰찼다.

100위권 건설사 중에선 43곳의 순위가 올랐고, 48곳은 내렸다. 9개사는 제자리 걸음을 했다.

올해도 주택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상승세가 지속됐다.

반도건설의 시평액은 2조2208억원으로, 전년(1조2122억원) 대비 83.2% 급증하며 12위에 올라 무려 15계단이나 수직 상승했고, 중흥토건(22위)도 전년(9953억원)에 비해 50.2% 증가한 1조4949억원으로 13계단 뛰어올랐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등 구조조정을 졸업하고, 새 주인을 찾은 일부 건설사들은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 2015년 EG건설에 인수되며 법정관리를 마무리한 동양건설산업은 올해 74위로, 전년(132위)보다 58계단 오른 반면 법정관리를 거쳐 SM그룹에 인수된 경남기업은 지난해 48위에서 올해 68위로 20계단 내려앉았다. 박경남기자 knp@

경영평가·주택실적·인수합병 따라 순위 요동

올해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경영평가액, 주택, 인수합병, 구설수 등이 직·간접적인 변수로 꼽힌다. 이들 변수에 따라 건설사 간 시공능력평가 결과의 희비가 엇갈렸다.

우선 올해 토목건축 시공능력평가액 1위와 2위를 차지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격차가 다시 벌어졌다.

지난 2016년 삼성물산은 현대건설과의 시평액 차이를 6조원 넘게 벌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삼성물산의 시평액이 뒷걸음질친 반면 현대건설은 상승 곡선을 그리며 시평액 격차가 2조원선으로 줄었다.

올 들어 다시 삼성물산이 현대건설을 멀찌감치 따돌리며 1위 자리를 지켰는데, 경영평가액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삼성물산의 경영평가액이 지난해 6조3537억원에서 올해 8조5642억원으로 34.8% 증가한 반면 현대건설은 올해 4조9268억원으로, 작년(5조2319억원)보다

삼성물산 경영평가액 34.8% 높고 현대 감소... 1·2위 격차 다시 확대 아이에스동서·대방·금성팩조 등 '주택' 비중 큰 건설사 대거 올라

울트라건설 흡수한 호반건설산업 '작년 131위 → 올 33위'로 수직상승 SM그룹 새 주인 맞은 경남은 떨어져 구설수 오른 업체 순위 하락도 눈길

5.8% 감소하며 시평액 차이가 4조3000억 원대로 벌어졌다.

지난해 경영평가액 3조4456억원으로, 시평 순위 8위에 올랐던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경영평가액 순위가 10위권 밖

으로 밀려나면서 시평 순위도 10위권에 겨우 턱걸이했다.

반면 반도건설은 경영평가액이 1조4191억원을 기록하며 8위를 차지한 덕분에 시평 순위도 지난해보다 15계단 오른 12위 자리를 꿰찼다.

올해 시평 결과에선 주택의 약발이 아직까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에스동서는 지난해 28위에서 올해 21위로 7계단 올랐고, 대방건설·제일건설·금성팩조주택 등 주택사업 비중이 큰 건설사들이 대거 순위를 끌어올렸다.

인수합병 절차를 마친 건설사들의 시평 순위도 요동쳤다.

호반건설산업은 울트라건설 흡수합병 효과를 톡톡히 누리며 지난해 131위에서 올해 33위로 무려 98계단이나 수직 상승했고, EG건설에 인수된 동양건설산업은 작년(132위)보다 58계단 오른 74위를 기록했다.

특히 호반은 호반건설주택(13위·2조1619억원), 호반건설(16위·1조7859억원),

호반건설산업(1조1582억원) 등의 총 시평액이 5조1060억원으로, 시평 순위 9위인 SK건설보다 시평액 규모가 커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SM그룹을 새 주인으로 맞은 경남기업은 올해 68위로 20계단 하락했고, 삼부토건은 64위로 지난해(59위)보다 5계단 떨어졌다.

올해 시평 결과와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크지 않지만 '구설수'에 오른 건설사들의 순위가 하락한 것도 눈길을 끈다.

지난 2016년 3위까지 올랐던 포스코건설은 작년에 5위로 떨어지던 데 이어 올해도 2계단 미끄러지며 7위까지 밀려났다. 포스코건설은 최근 공공공사 일할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의혹이 불거져 곤욕을 치르고 있다.

동탄2 인도시 부실공사 논란과 검찰 수사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부영주택은 지난해 12위에서 올해 26위로 시평 순위가 곤두박질쳤다. 박경남기자 knp@

2018 시공능력평가 11~50위 (토목건축) (단위 : 억원)

연번	업체명	평가액	순위변동
11	㈜한화건설	28,623	-
12	㈜반도건설	22,208	15↑
13	㈜호반건설주택	21,619	-
14	㈜태영건설	18,733	6↑
15	한신공영(주)	18,603	1↑
16	㈜호반건설	17,859	3↓
17	두산건설(주)	16,715	4↑
18	계룡건설산업(주)	16,013	1↓
19	㈜한라	15,601	1↓
20	코오롱플로빌(주)	15,342	1↓
21	아이에스동서(주)	15,237	7↑
22	중흥토건(주)	14,949	13↑
23	금호산업(주)	14,345	8↓
24	두산중공업(주)	14,334	-
25	㈜한양	14,160	-
26	㈜부영주택	13,753	14↓
27	대방건설(주)	13,423	4↑
28	삼성엔지니어링(주)	13,421	14↓
29	신세계건설(주)	13,104	6↓
30	쌍용건설(주)	13,069	8↓
31	제일건설(주)	12,918	6↑
32	㈜KCC건설	12,760	6↓
33	㈜호반건설산업	11,582	98↑
34	㈜시브원	11,395	8↑
35	동성호	11,316	6↓
36	㈜부강건설(주)	11,158	-
37	㈜사회건설(주)	10,981	5↓
38	효성중공업(주)	10,522	8↓
39	㈜동원개발	10,332	1↓
40	㈜원진건설	10,311	4↑
41	㈜한진중공업	10,252	8↓
42	우미건설(주)	10,214	2↓
43	화성산업(주)	10,138	9↓
44	양우건설(주)	9,439	3↑
45	㈜리안건설	9,058	2↓
46	㈜시한	8,742	-
47	㈜금강주택	7,927	3↑
48	㈜서해종합건설	6,863	16↑
49	고려개발(주)	6,794	4↓
50	㈜금성팩조주택	6,527	2↑

토목건축공사사업 시평 총액 238조3763억... 2.9% 늘어

실적·경영·신인도평가액 증가... 기술부문은 2년째 두자릿수 급감

올해 토목건축공사사업 시공능력평가 총액은 지난해(231조6327억원) 대비 2.9% 늘어난 238조3763억원을 기록했다.

시평 총액을 구성하는 항목 중 실적과 경영, 신인도평가액은 모두 증가했으나 기술평가액은 2년 연속 급감했다.

토목건축 공사 실적(2017년)은 대립산업이 약진하며 삼성물산에 이어 2위에 올랐고 대우건설은 작년과 같은 3위를 지켰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 시공능력평가 결과에 따르면 시평총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실적평가액은 올해 96조4681억원으로 작년(89조1231억원) 대비 8.2%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력한 규제 주력시장이 침체에 들어섰지만, 이번 평가까지는 그 이전 호조세가 반영됐다.

경영평가액도 실적 개선에 힘입어 전년 대비 5.8% 증가한 81조7834억원을 기록했다. 신인도평가액 또한 지난해(12조7246억

토건공사 실적, 삼성·대림·대우·順산업·환경설비-삼성엔지니어링

조경·반도건설 수위 차이

공종별로는 도로·항만 '현대 1위'

공항·지하철은 삼성물산이 '톱'

원)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15.5%)을 보이며 14조6911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기술평가액은 작년 대비 13.5%나 줄어 45조4334억원에 그쳤다. 지난해(-12.9%)에 이어 올해도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2015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으로 기술개발투자비 인정범위가 축소(세무서 신청 세액공제분만 반영)된 영향이 올해까지 이어진 것이다. 지난해 국토부는 기술개발 투자액이 최근

3년간 반영되는 만큼 올해부터는 감소세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으나 예상이 빗나갔다.

업종별 공사 실적(2017년)을 보면, 토건 분야 1~3위는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대우건설이 차지했다. 건축분야(1위)에서 약진한 대림산업이 5위에서 2위로 뛰어올랐다.

반면, 현대건설은 지난해 토건실적 2위에서 5위로 밀려났다. 올해 토목실적에서는 2위를 지켰으나 건축분야(5위)에서 고전했다.

산업·환경설비 실적은 삼성엔지니어링이 수위를 지킨 가운데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뒤를 이었다.

조경은 반도건설이 기성액 1349억원을 기록하며 제일건설을 밀어내고 수위를 차지했다.

한편, 주요 공종별로는 도로와 항만에서는 현대건설이 1위를 차지했고 공항, 지하철 실적은 삼성물산이 수위에 올랐다.

대우건설은 철도와 하천·산림·농수산·토목·택지·용지조성 등 3개 공종 1위를 기록했고 코오롱글로벌은 상수도과 하수도 공종에서 최다 기성액을 올렸다.

SK건설은 댐 실적 1위, 한화건설은 기타 토목공사분야 기성액 1위를 기록했다.

건축업종에서 아파트 실적은 GS건설이 수위에 올랐고 업무시설과 교육·사회용 건물 실적에서는 현대건설이 1위를 차지했다.

대립산업은 단독연립주택과 숙박시설 실적 1위에 올랐고 신세계건설과 삼성물산은 상가와 광공업용건물 1위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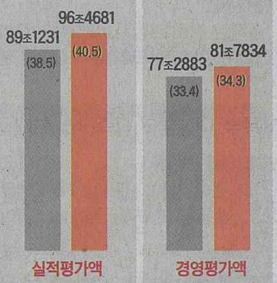
산업·환경설비업종 중 산업생산시설은 SK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이 '톱3'에 이름을 올렸고 화력발전소는 두산중공업과 현대엔지니어링, SK건설 순이었다. 에너지저장·공급시설은 대우건설에 이어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뒤를 따랐다.

복승권기자 skbong@

시공능력 평가항목별 추이

단위: 억원 (%)=구성비

총 2017 231조6327억원
2018 238조3763억원



“강원도 ‘노후 인프라 관리’ 조례 제정 필요”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으로 인프라 정책 추진동력 확보 시급
강원연구원 “건설업 비중 높은 지역 산업체질 강화 전략 마련해야”

강원도의 인프라 투자가 탄력을 얻기 위해 해선 노후인프라 개선 촉진 조례와 함께 전문기관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건설업 비중이 높은 강원도에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제도 마련을 위해 인프라전문기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와 공평으로 강원도 각 부문별 인프라 현황 조사와 개선 과제 업무

를 마친 강원연구원은 노후 인프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가칭)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례의 내용은 노후 인프라의 실태 분석과 관리계획 수립을 포함한다. 조례가 제정되면 강원도의 현안 및 정책적 목표를 고려해 우선적으로 관

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선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강원도는 인프라 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없는 실정이다. 반면 다른 지자체에선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노후 인프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앞서 2016년 7월 서울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를 제정했다. 30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물에 대한 실태평가 및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해 성능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이후 지난해 11월과 12월 전남·부산·대구에서도 유사한 조례 제정을 통해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한영한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강원도 인프라 시설의 실태 평가, 체계적 관리, 중·장기적 투자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도의 전문 투자관리 조직인 ‘(가칭) 강원 공공투자관리센터(공투센터)’ 설립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 조직에서 신규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등의 투자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예산집행 심사를 일원화해 수

행하는 구조다. 공투센터가 설립되면 강원도의 신규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예산집행의 심사 등 전문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 2010년 서울시는 서울공투센터를, 2016년 제주도는 제주공투센터를, 충청남도는 지난해 충남공투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이달 개소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 인프라 관리 조례와 공투센터 설립이 확정되면 인프라 신축, 관리 업무를 추진할 때 근거가 확보될 수 있다. 이는 강원도 산업에서 제조업보다 높은 비중(9.2%)을 차지하는 건설업 활성화로 이어져 전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강원도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평균을 넘어서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평창동계올림픽 특수에 따라 건설투자가 증가한 결과였다.

한 연구위원은 “인프라 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성능개선을 통해 강원도 산업구조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 발전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건설 유관단체, 라오스 댐사고 이재민에 성금 2억원 지원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사진)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유관기관과 함께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보조댐 사고와 관련, 구호 성금 2억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각 종합건설사도 라오스 구호 성금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

설산업사회공헌재단 내에 '라오스 댐 재난 특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정부의 지원 일정과 절차에 따라 성금을 모금한다는 계획이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피해를 입은 라오스 아타푸주(州)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재난에 대한 구호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범 건설업계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하! 그렇구나

계약보증금의 성질과 손해배상 청구

계약보증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약정대로 이행하는 것을 보증하고, 만약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의 이행을 계약보증금의 한도에서 보증하는 것이다.

공사 도급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을 약정하면서 계약보증금 액수만 약정하고 채무불이행 시 그 귀속방법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도급계약에 계약보증금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초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도급인이 도급계약과 관련해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에 곧바로 보증서의 보증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없고, 도급인은 건설공제조합에 당초 수급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 채무의 존재와 그 채무액을 입증하여 그 범위 안에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A회사가 B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B가 A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B의 귀책사유로 A가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A에게 귀속하고,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A는 B에게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으며, B는 계약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이행(계약)보증서를 발행받아 A에게 제출한 사례가 있다.

하급심은 위 사례에서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사례에서 A와 B가 계약보증금에 관한 약정 목적은 B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간접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것 외에, B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도급계약 관계를 청산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B가 A에게 배상하여야 할 최소한의 손해액을 계약보증금액으로 예정하여 A로 하여금 손해 발생 및 그 수액을 증명하지 않고서 위 계약보증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만약 A가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것을 증명하여 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액의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에 계약보증금을 미리 A에게 교부하게 한 데 있다고 보았다.

이때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되, 다만 B가 배상할 손해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손해담보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A가 B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여 이를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해당하며, 법원은 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28886 판결).

이응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